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8월 22일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올해의 장마는 작년보다 11일 빠른 7월 18일에 끝났습니다. 여러 번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태풍도 오지 않아 큰 피해 없었던 장마기간이었습니다. 이후 무더위가 계속되어 히타시에서는 1일 단위로 전국 최고 기온(7월 31일 최고 36.9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히타 및 벳푸 등 여름 마쓰리도 한창 열리고 있으며, 불꽃축제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대만과 베트남에서 여행박람회 개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일본 관광·문화 엑스포 Touch The Japan에 관광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오이타현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대만인들이 방문해주실 수 있도록 관광 세미나 및 주유 코스의 설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FEEL JAPAN에 관광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쿄 및 오사카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규슈의 인지도가 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이타현의 위치와 온천의 매력 등을 홍보함과 동시에 여행회사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회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올 가을부터 실시되는 투어로 베트남의 많은 분들이 오이타를 방문해주실 예정입니다.



[관광 · 지역진흥과]

<오이타 소식>



「규슈 부흥 할인」 판매 개시

규슈관광의 부흥을 위하여 여행 쿠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마모토와 오이타는 최대 70%, 그 외 규슈 지역에서는 최대 50%의 할인을 받아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판매 당일에 접수가 마감하는 등 매우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타 배 저장고, 현축산공사의 새로운 시설 완성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충실한 기능을 갖춘 히타 배 저장고가 완성되어 지난 4일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장기보존이 용이해지며, 국내외로의 유통 확대가 기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높은 위생관리기준을 갖춰 영미권으로의 수출 대응을 배려한 현축산공사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연수 및 견학이 가능한 시설로 분고 소고기의 판로와 수출 확대에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8월 22일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분고오노시 국제교류원 박새미나



1. 짧게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저는 분고오노시 국제교류원 박새미나라고 합니다. 한국 서울 출신으로, 올 4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분고오노시청 마을만들기추진과에 소속되어 분고오노시와 우호교류도시인 전북 익산시와 부산 기장군과의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의 연락을 물론, 번역 및 통역 업무가 많습니다.

또한 분고오노시민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시게끔 한국 문화 강좌와 한국어 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분고오노시에 오시게 된 소감?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대학생 시절, 큐슈에서 1년 동안 유학생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큐슈에는 다른 곳보다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큐슈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첫인상이라고 하면, 이곳에 온지 이틀째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첫인상으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 곳 분고오노시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곳에서의 생활이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주위에 친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챙겨주셔서 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4. 업무 또는 분고오노생활에서 재미있었거나 놀라웠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오이타합동신문에 분고오노시의 새로운 국제교류원으로 제 인터뷰가 작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셨고, 오이타시에 사시는 재일교포 분께서 엽서로 연락을 해주신게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또 집 청소를 하던 중에 집에서 도마뱀이 나와서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본 적도 없는 도마뱀이었지만, 이곳에선 종종 길을 가다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도마뱀이 집에서 나왔을 때의 그 임팩트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 한국 분들에게 분고오노시의 매력을 소개해주세요.

오이타현 남서부에 위치해있는 분고오노시는 산과 강이 풍부하며, 일본 지오파크(지질공원)로 인정받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연환경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래 전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이 분화했을 때 흘러나온 화쇄류로 인해 지금의 분고오노시 땅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동양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하라지리 폭포를 비롯한 많은 폭포가 있으며, 석조 다리와 석상과 같은 돌을 활용한 문화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올레길을 벤치마킹한 규슈 올레길 코스 중 오쿠분고 코스가 구성되어 있어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주십니다. 분고오노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지는 않지만 농가를 활용한 농가 민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이곳에서 머물며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재배한 맛있는 채소도 먹을 수 있습니다.

6. 앞으로의 본인만의 목표나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현재 마을만들기추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제 유학시절부터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그 후의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제게 많은 영향을 준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마을만들기를 공부하면서 각 지역마다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의 보석을 발굴하는 일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고오노시는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곳만의 보석을 발굴하여 한국 여러분들께 발신해나가고 싶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8월 22일

오이타 100% 즐기기! 분고오노 지오파크



오노강과 히라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폭포로, 메이지 42년(1909년)에 석조로 만들어진 친다 수력발전소의 터가 근대화유산으로 남아있어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주상절리와 함께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이 인상적인 곳으로, 특히 전날 내린 비로 수량이 늘어나 박력있는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 120m, 높이 20m에 이르며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하라지리 폭포는 아소산 분화로 인한 화쇄류가 흘러나와 만들어진 것으로, 한적한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절과 수량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연출해주며, 저녁에는 라이트업됩니다. 운이 좋으면 사진에 나와있는 무지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친다 폭포

하라지리 폭포

후코지 마애불

젤라또 전문점

절벽에 새겨져있는 높이 11m의 거대한 부동명왕 마애불은 현내 최대규모를 자랑합니다. 마애불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석불이 안치되어 있는 석굴이 나오는데, 자연에 둘러싸여 엄숙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곳은 오쿠분고올레 코스 중 한 곳으로 웅장한 마애불이 트래킹하는 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수제 젤라또 전문점 밀크팜 후루쇼는 미치노에키(휴게소) 하라지리 폭포 옆에 위치해있는 소박하고 정감있는 가게입니다. 이 곳은 낙농가에서 갓 짜낸 우유와 고장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 친환경재료를 만든 12종류의 수제 젤라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라지리 폭포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필수 코스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오이타에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분고오노시의 친다폭포와 하라지리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있으니 더위가 날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고오노 지오파크를 돌며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제교류원 김진아

